

	성북소리 홍보자료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팀장	이환규
		담당자	성명 : 이유나 전화 : 2241-5883

□ 성북구의회, 2015년 신년인사회 개최
-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약 다짐 -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1월 6일 의회 청사 로비에서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22명의 의원과 구청 간부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태근 의장과 김영배 구청장의 신년사에 이어 김원중 부의장의 건배제의, 그리고 축하 떡 나눔과 기념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태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구민의 낮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마음에 새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대안제시 및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미년 새롭게 떠오른 해처럼 구민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신년인사회 마친 후 전체 의원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 2015년 상반기 의사일정 안내

일 시	내 용	비 고
2. 3(화) ~ 2.11(수)	제232회 임시회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주요안건처리
3.23(월) ~ 3.31(화)	제233회 임시회	예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및 안건처리
4.23(목) ~ 5. 1(금)	제2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부서 선정 및 안건처리
6. 5(금) ~ 6.29(월)	제235회 제1차 정례회	2014년도 결산안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스케치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방문
- 보건복지위원회 -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진선아)는 2004년 개관 이후 지난 3월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를 방문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3층 공유서가에서 성북문화재단 관계자의 시설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같은 층의 독립영화전용관, 4층의 멀티미디어실, 편집실, 장비관리실 등과 2층의 마을방송스튜디오, 1층의 영사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특히 3층에 위치한 134칸으로 이루어진 공유서가는 1인에게 1서가를 분양하여

책을 자유롭게 기증할 수 있도록 추진예정이어서 위원들은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독서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관심을 보였다. 또한 2층 마을방송스튜디오는 다양한 미디어장비를 구축하여 마을인터넷방송 등을 제작하고 마을이야기와 소식을 함께 나누며 참여하는 공간으로, 소속 위원들은 스튜디오 내에서 음향·영상장비를 통한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을 가지며 성북 주민의 역량 강화와 문화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진선아 위원장은 “우리 성북구만의 특별한 직업 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청소년들이 미디어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주민의 소통과 참여가 중요한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시범기간 동안 운영 상황을 잘 검토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불편없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매진, 도시계획시설 현장방문

- 도시건설위원회 -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영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 및 2015년도 신규예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석관동 장기미집행 시설 외 5개소를 방문하였다.

구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총 78건이며 이 중 도로가 77건, 사회복지시설이 1건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권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과 구청 도로시설과장 및 관련 직원들이 참석하였고 석관동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장을 살펴본 의원들은 “장기적인 안목과 면밀한 검토로 도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주택가에 놓인 적재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환경미화원을 불러주세요’ 표지판 부착으로 깔끔해진 장소에서는 섬세하게 살펴보는 등 주민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구석구석 꼼꼼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의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회의장을 방불케 하였다.

아울러 권영애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시 중점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숙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개선사항을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자주 현장방문을 통해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성북 위한 효율적 관리, 도시관리지원센터 매입부지 현장방문 - 행정기획위원회 -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일영)는 정릉에 위치한 도시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곳은 청소행정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등 성북구청 8개 부서의 직원, 환경미화원, 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한 6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관리실, 청소차량 14대, 트럭 2.5톤 2대 등 23대의 차량 장비가 있으며, 그 외 청소용품 및 차량부품 등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청소행정과장, 장비관리팀장으로부터 시설현황 및 부지매입 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정비 중이던 차량과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성북의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도시관리지원센터는 일부 토지를 2012년 산림청으로부터 매입하여 분납중인 상태로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남은 매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김일영 위원장은 “성북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부지매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시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